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_슬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파견기간	2016년 2학기 (9월~12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밴쿠버 다운타운과 지하철로 약 20분 걸리는 주택가에 위치해있으며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어 중심가로 이동이 용이함. 규모가 큰 편은 아니나 건물마다 담당부서가 있어 매우 잘 관리되고 있음. 특히 도서관 등 신축건물은 깨끗하고 신실 시설을 갖추고 있음. 현지 캐나다인 보다 교환학생이나 인터내셔널 학생이 더 많아보였으며 LEAP 프로그램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 중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음.</p>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등으로 이루어진 레벨테스트를 거친 후 수준에 따라 분반을 함. 모든 LEAP프로그램 수업은 리딩, 리스닝, 라이팅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피킹은 따로 다루지 않음. 처음 배정된 LEAP3의 리딩 파트에선 숫자와 관련된 정보(인구, 퍼센트, 생산량 등)를 다루는 법은 중점적으로 배웠음. 리스닝은 들으면서 답안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5분가량의 같은 내용을 총 3번 들려줌. 라이팅은 일반적인 주제에 3개의 아이디어를 약 15문장으로 구성하는 방식이었음. 과제의 양은 많았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없었음. LEAP5에서는 더 학문적인 영어 글쓰기 방식을 배웠음. 리딩 기사의 길이가 길어지고 어려워졌으며 리스닝은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아웃라인을 만든 뒤 답지를 채우는 형식으로 같은 내용을 2번 들려줌. 라이팅은 A4용지 3장 분량으로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좁은 주제로 써야 했음. 과제의 양도 많아지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함. 강사는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p>

	전문적으로 배운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각 나라에서 온 LEAP프로그램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음. 한국인은 없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같은 나라 자원봉사들과 자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음. LEAP학생들을 위해 벤쿠버 현지 레스토랑 방문, 스케이트 타러 가기 등 유료 액티비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며 캐나다 식당 예절 배우기 등의 무료 워크숍이 한 달에 2번 정도 있었음.</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날씨가 매우 건조해 피부 보습에 유의해야함. 건조한 기후 탓에 눈가와 목 등 얇고 예민한 부위에 피부병이 생겼음.</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치안은 매우 안전한 편이나 다운타운 외에 거주 지역은 날이 어두워지는 즉시 도보에 사람이 거의 없으니 주택가를 다닐 땐 주의를 요망함. 노숙자들이 많아 직접 말을 걸며 구걸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차이나타운 쪽은 마약중독자들이 많은 우범지대로 방문 시 조심할 필요가 있음.</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랑가라 컬리지와 도보로 약 20분정도 떨어진 2층 주택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했었음. 중국계 캐나다인인 호스트와 캐나다인 남편, 2살짜리 딸과 함께 2층 생활공간을 공유함. 같은 층을 써서 사생활이 아주 잘 보호되는 편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본인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느껴졌음. 벤쿠버의 관광지나 식당을 자주 추천해줬으며 식료품점에 함께 가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줌.</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주로 빵이나 시리얼, 점심은 저녁에 남은 음식이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학교에 싸가서 먹었으며 저녁은 호스트가 만든 캐나다 식 가정식이나 배달 음식 등을 호스트 가족과 함께 먹음.</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홈스테이 집이 학교와 20분 거리로 매일 걸어서 통학함. 다운타운은 학교 앞 지하철역에서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교통카드를 구매해 충전하며 다녔음. 밴쿠버는 지역별로 존이 나뉘져 있어 같은 존 안에서는 2.75캐나다 달러, 다른 존으로 이동할 경우 3.75캐나다 달러를 지불해야 함.</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아시아나 왕복-1,050,800	
Fees	홈스테이 소개비-170캐나다 달러	
보험료	국내 여행자 보험 (한화)-90,000	
숙소	2,500,000	
교통비	200,000	
책값	25,000	
기타2	2,5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캐나다 밴쿠버로 2학기 파견이라면 여름옷이 필요 없음. 밴쿠버는 9월부터 한국의 10월 초 날씨와 비슷해 긴팔과 긴바지를 많이 챙기는 것이 좋음. 공산품이 비싸고 세금이 따로 붙으므로 옷이나 신발 등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음. 세일을 자주 하지만 세일 가격도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므로 겨울까지 필요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모두 챙겨가는 것이 좋음. 다문화 도시여서 한국 라면이나 김치, 김 등은 구하기도 쉽고 한국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함. 밴쿠버 랑가라 컬리지로 1학기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저렴한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함. 1학기 단기 어학연수는 높은 비용의 보험 커버리지를 요구하지 않으나 현지 대학에서 추천하는 보험은 커버리가 높은 비싼 보험임.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어학연수를 했다고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4개월 정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함. 랑가라 컬리지의 LEAP프로그램이 하루 4시간으로 생각보다 짧고, 밴쿠버 내 대학으로의 편입이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초기 프로그램에 가까워 본인이 생각했던 커리큘럼과는 거리가 있었음. 하지만 외국인과 말할 때의 두려움이 줄어들었으며 영어 환경으로 인해 리스닝 실력은 늘음. 영어공부만 하기보다 틈틈이 빅토리아 섬, 시애틀, 로키산맥, 휘슬러 마운틴 등 주변을 여행하며 캐나다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음. 날씨가 한국에 비해 건조해 같이 간 친구들 대부분이 피부 트러블을 앓았으며 본인의 경우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홈스테이를 하면서 캐나다 가정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으며 학교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음. 여러 다른 문화들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게 됐으며 보다 열린 사고를 가지게 됨. 밴쿠버 외에 퀘벡, 토론토 지역의 서점들을 돌아봤는데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 서적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 서점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독립잡지들이나 포토그래피 책이 각 서점마다 진열대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LEAP프로그램 친구들과 외식</p>	<p>할로윈데이 때 호스트 가족들과 조각한 호박들</p>
	
<p>벤쿠버의 건조한 기후로 생긴 피부병</p>	<p>LEAP3-Mini Presentation 준비</p>
	
<p>벤쿠버 휘슬러 마운틴 스키</p>	<p>아침과 점심으로 주로 먹었던 샌드위치</p>

